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
 전화 : 86-10-6505-2671/3
 이메일 : beijingk@kita.net

1 中 통계국, 1~2월 경제 통계치 발표

- 중국 국가통계국은 3월 15일 기자회견에서 2023년 1~2월 각종 경제 통계를 발표하고 공업생산이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고 밝힘
- **(공업 생산 회복 가속화, 서비스업 뚜렷한 회복세)** 1~2월 규모이상(연매출 2,000만 위안 이상) 공업기업 부가가치는 전년 동기대비 2.4% 증가하였고, 이 중 채광업은 4.7%, 제조업은 2.1%, 전력·열력·가스·용수 공급업은 2.4% 증가. 태양광 배터리와 신에너지차 생산량이 각각 40.8%, 16.3% 증가. 2월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52.6%로 전월 대비 2.5%p 상승했고 1~2월 서비스업의 생산지수는 전년 동기대비 5.5% 상승
- **(소매판매액 증가)** 1~2월 소비재 소매판매액은 전년 동기대비 3.5% 증가한 7조 7,067억 위안(한화 약 1,463조원), 이 중 상품 소매판매액은 2.9% 증가, 요식업 매출은 9.2% 증가함. 식량·식용유·식품류, 금·은·주얼리, 의류·방직품, 화장품 소매판매액은 각각 9.0%, 5.9%, 5.4%, 3.8% 증가. 상품 온라인 소매판매액이 5.3% 증가하여 전체 소매판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2.7%로 집계됨
- **(고정자산 투자 안정적 증가)** 1~2월 고정자산 투자는 5.5% 증가한 5조 3,577억 위안(약 1,017조원)이며 인프라시설, 제조업 투자가 각각 9.0%, 8.1% 증가했고 부동산 개발투자가 5.7% 감소. 상업주택(商品房) 판매면적은 3.6% 감소, 판매액은 0.1% 감소한 1조 5,449억 위안(약 295조원)임
- **(소비자물가지수 소폭 상승, 생산자물가지수 하락)**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기 대비 1.5% 상승했으며, 이 중 식품·담배·주류 가격은 3.4% 상승, 생활용품 및 서비스 가격은 1.5% 상승.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 동기대비 1.1% 하락했으며 1월과 2월 각각 0.8%, 1.4% 하락함

자료원 : 중국 국무원
http://www.gov.cn/xinwen/2023-03/15/content_5746937.htm

2 中 상무부, '중국 투자의 해' 시리즈 행사로 외자 유치 강화

- 중국 정부는 올해 사업보고에서 '외자 유치·이용 확대'는 8대 중점 사업 중 하나로 '개방된 중국의 대규모 시장은 각국 기업의 중국내 발전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음
- 상무부는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 투자의 해(投資中國年)' 투자유치 행사를 추진하며 지방정부와 해외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역별 산업발전 및 투자유치를 지원할 계획
- 투자유치 행사 외에도 상무부와 국가개혁발전위원회 등 부처는 올해 통신, 인터넷, 교육, 문화, 의료 등 분야의 개방을 추진하고 해외자본이 첨단제조업, 현대화된 서비스업, 하이테크 기술, 환경보호·에너지절감 등 분야에 투자하도록 지원하며 '외자진입 네거티브리스트' 이외의 제한조치를 철폐할 예정
- 지방정부도 외자유치 지원을 확대하는 추세로 광둥성은 조건에 부합되는 외자기업, R&D센터 등의 세무감면 계획을 밝혔고 쓰촨성, 랴오닝성 등지는 외자유치 장려금 한도를 인상했으며 장쑤성, 저장성 등 지방 정부는 이미 유럽 등지에 투자유치 대표단을 파견하였음
- 대표적인 외자기업인 맥도날드는 2023년 2월까지 중국에 5,000개 이상의 점포를 오픈했는데, 지난 5년간 점포수가 배로 증가했고 올해는 90개의 신규 점포를 오픈할 계획.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중국·동남아시아 총재는 중국은 슈나이더일렉트릭의 글로벌 4대 R&D기지 중 하나로 향후 중국 협력파트너와 더 많은 신기술을 개발에 매진할 것이라고 언급함

자료원 : 경제참고보

http://www.jjckb.cn/2023-03/17/c_1310703207.htm

3 광둥성, 1~2월 전기차·태양광 제품·리튬 배터리 수출 급증

- 광둥성 해관총서에 따르면 광둥성의 1월 수출입은 전년 동기대비 22.7% 감소한 5,877억 위안(한화 약 112조 원), 2월 수출입은 4% 증가한 4,995억 위안(약 95조 원)이며, 이 중 수출은 1.5% 증가한 2,999억 위안(약 57조 원), 수입은 7.9% 증가한 1,997억 위안(약 38조 원)임
- 수출입 분야의 3대 특징은 △전기차·태양광 제품·리튬 배터리가 새로운 수출 성장 동력으로 부상 △벌크상품, 소비재 수입이 뚜렷하게 증가 △신흥시장과의 교역액 증가세 유지 등임
- 1~2월 전기차·태양광 제품·리튬 배터리 수출은 각각 15.4배, 39.3%, 93.7% 증가. 한편

1~2월 중국-유럽 화물열차 68편을 운행하여 컨테이너 6,456개를 운송했으며 화물 운송량은 3.8만 톤으로 각각 224%, 207%, 238% 증가. 1월 12일자로 동펑란투(东风岚图) 신에너지차 50대를 실은 화물열차가 광저우역에서 출발했는데, 이는 중국-유럽 화물열차를 이용한 중국 최초의 신에너지차 수출로서 웨강아오(광둥성·홍콩·마카오)·대만구의 신에너지차 수출에 새로운 기회 마련

- 벌크상품 분야에서는 1~2월 석탄, 원유, 철광석 등 수입이 각각 32.7%, 15.6%, 10.5% 증가했고 식량, 유제품 수입이 각각 10.9%, 12.2% 증가. 소비재의 경우 주얼리·보석, 액세서리 수입이 각각 76%, 26.9% 급증했고 채소, 신선·건조 과일 수출은 각각 43.9%, 50.7% 대폭 증가
- 신흥시장과의 교역액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1~2월 라틴아메리카국 중 브라질, 칠레와의 교역액이 각각 24.8%, 14.4% 증가함. 올해는 일대일로 건설제안 10주년이 되는 해이자 RCEP 협정 발효 1주년이며, 인도네시아의 경우 중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추가로 700개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여 65.1%의 중국산 원산지 제품이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되었음
- 지난 3월 16일 제3회 중국(인도네시아)무역박람회가 자카르타에서 개막하여 광둥, 저장, 장쑤, 산둥, 푸젠, 지린 등 6개 성, 20여개 지역의 725개 기업이 해외 전시회에 참가함. 주최측은 실제 전시회를 방문한 바이어는 2만 개사, 예상 계약액은 20억 달러로 추산했음

자료원 : 남방일보

<https://www.gzdaily.cn/amucsite/web/index.html#/detail/1992120>

4 中, 1~2월 저장성 수출 전국 2위 달성

- 항저우해관에 따르면 올해 1~2월 저장성 수출입은 전년 동기대비 4.8% 감소한 6,914억 위안(한화 약 131조 원), 이 중 수출은 6.4% 감소한 5,029억 위안(약 95조 원), 수입은 0.3% 감소한 1,884억 위안(약 36조 원)임
- 아세안은 미국을 제치고 2위 무역파트너로 부상. 1~2월 아세안, 중동,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와의 수출입이 938억 위안(약 18조 원), 843억 위안(약 16조 원), 693억 위안(약 13조 원), 501억 위안(약 9조 원)으로 각각 7.6%, 4.2%, 1.0%, 3.4% 증가함
- 수출품목별 저탄소·친환경 제품 수출이 증가. 1~2월 전기기계제품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3.4% 감소한 2,323억 위안(약 44조 원), 수출 비중은 46.2%로 1.4%p 상승. 이 중 태양광 배터리,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 수출이 각각 20.4, 84.0%, 1.3배 증가

- 수입상품 품목별로는 농산품 수입이 대폭 증가. 1~2월 농산품 수입은 34.5% 증가한 155억 위안(약 3조 원)이며, 이 중 식용유 수입은 2.3배 증가한 13억 위안(약 2,481억 원), 육류 수입은 1.1배 증가한 9억 위안(약 1,704억 원)임
- 시장구매무역이 전국 앞자리를 차지하고 국경간 전자상거래 수출이 급증. 1~2월 시장구매무역 수출은 7.8% 증가한 679억 위안(약 13조 원)으로 전국의 56.0%를 차지했고 국경간 전자상거래 수출입은 49.7% 증가한 284억 위안(약 5조 원), 이 중 수출은 73.2% 증가한 209억 위안(약 4조 원)으로 집계
- 자유무역시험구와 종합보세구의 수출입 비중이 상승세를 보였으며, 자유무역시험구 수출입은 5.4% 증가한 1,045억 위안(약 20조 원)으로 전체 수출입의 15.1%를 차지, 비중은 1.5%p 상승, 종합보세구 수출입은 33.6% 증가한 262억 위안(약 5조 원)으로 전국 수출입의 3.8%를 차지, 비중은 1.1%p 상승함

자료원 : 항저우일보

<https://baijiahao.baidu.com/s?id=1760258752311901750&wfr=spider&for=pc>

5 中, 고주파 미용기기 2024년 4월 1일부터 3등급 의료기기로 관리

- 중국국제금융공사(CICC) 발표에 따르면 2025년 중국의 가정용 미용기기 시장규모는 215억 위안(한화 약 4조 원)에서 374억 위안(약 7조 원) 사이로 성장하고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26~39%에 달할 전망
- 2022년 3월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의료기기 리스트 목록(2022년 30호)'을 발표하여 일부 의료미용 용품의 관리감독 방식에 대해 조정. 2024년 4월 1일부터 고주파치료기기(射频治疗仪), 고주파피부치료기기(射频皮肤治疗仪) 등은 3등급 의료기기로 관리 감독한다고 규정함
- 2024년 4월 1일 전까지 고주파치료기기, 고주파 피부치료기기 등은 여전히 시중에서 판매가 가능하지만 4월 1일 이후부터 3등급 의료기기 등록증을 취득하지 못한 제품은 수입·생산·판매가 불가함
- 중국내 가정용 미용기기 시장에서 야만(雅萌, YA-MAN), REFA, Hitachi, Panasonic, PHILIPS 등 브랜드가 경쟁 중이며, 탈모기 시장에서 70%를 점하고 있는 Ulike 산하의 지명(极萌) 브랜드 관계자는 고주파 성능 등 테스트를 통과하여 3등급 의료기기 신청을 시작했다고 밝혔음

자료원 : 증권일보망

<http://www.zqrb.cn/finance/hangyedongtai/2023-03-17/A1679053065646.html>

6 中, 2월 캠핑용품 주문량 75% 급증

- 중국내 대부분 지역 기온이 상승하자 캠핑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2월 캠핑제품 주문량이 전년 동기대비 75% 증가했고 3월 10일까지 캠핑 관련 제품 검색량이 450% 증가함. 중국 내 도시 중 청두, 광저우, 선전, 상하이 등지의 캠핑열이 가장 높았음
- 최근 이우소상공성(义乌小商品城)을 찾는 해외 방문객이 하루에 1,000여 명에 달하고 있으며 일부 텐트 생산업체는 5~6월까지 주문이 찼음. 한 아웃도어용품 생산업체는 현재 텐트 생산량이 하루당 300~500장으로 올해 1분기 판매량이 전년 동기대비 50~60%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고, 또 다른 텐트 및 다기능 아웃도어 방수가방 생산업체도 창고에 가득 찬 제품을 영국과 미국으로 곧 수출할 예정이라고 전함

자료원 : 환구망

<https://www.163.com/dy/article/HVSTK1JG0552VBSS.html>

7 中, 3.15 소비자의 날 고발 프로그램 방영

- 올해 CCTV 3.15 소비자의 날 고발 프로그램은 품질, 마케팅 등 불법 기업활동을 집중 조명함
- (품질 불합격) △화장품으로 등록한(妆字号) 미용 주사제 : 2022년 7월 우한미용박람회 참가한 일부 기업들이 미용 주사제를 선보였는데 전문가는 화장품이란 피부에 도포하는 제품으로 주사용으로 사용할 경우 부작용이 매우 크며 얼굴을 망칠수 있다고 권고함 △오토바이 헬멧 : 헬멧 생산업체가 원가를 낮추기 위하여 회수 재료로 제품을 생산하여 사고 발생시 보호기능을 갖추지 못하는 문제점이 존재 △'태국 쌀'로 가장한 인조향료 추가 쌀 : 안후이성 지역에서 쌀 생산시 인조향료를 추가하여 태국 쌀처럼 향이 나는 쌀을 매년 천여 톤씩 판매



▲얼굴을 망치는 미용주사제



▲회수한 재료로 생산된 헬멧



▲'태국 쌀'로 가장한 인조향료 추가 쌀

- **(불법 마케팅)** △라이브방송 상품 판매 시 가짜 고객 투입 : 한 대의 컴퓨터와 100여대의 휴대폰으로 100여명의 가짜 고객을 만들거나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 한 대의 휴대폰으로 200~2만 명의 휴대폰을 조작하여 가짜 고객을 라이브방송 상품 판매시 투입 △노인 대상 라이브방송 상품 과대광고 : 노인 대상 분말음료 등의 일반식품을 판매 시 효능을 과대광고 하여 고가로 판매 △노인 대상 고가 의약품 판매 : 노인들에게 4시간에 달하는 음성녹음(광고) 이 수록된 '라디오'를 선물하고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수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의약품을 판매

자료원 : 베이징상보

<https://baijiahao.baidu.com/s?id=1760444026397476217&wfr=spider&for=pc>

8 中, 해외 단체관광 업무 회복 국가 60개로 확대 ... 한국, 일본은 제외

- 중국 문화관광부는 3월 10일 공지를 발표하여 3월 15일부터 40개 국가 대상 여행사 및 온라인 여행사의 출국 단체관광 및 '항공편+호텔' 관련 업무를 회복한다고 밝힘
- 이번 단체관광을 회복한 국가 중 베트남, 이탈리아, 세르비아, 프랑스, 스페인 등지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도가 높았으며, 기존 발표한 20개 국가를 포함하면 단체관광이 가능한 국가가 60개로 증가함(*한국, 일본 미포함)

中 해외 단체관광 업무 회복 국가 명단

국가명 (문화관광부 통지문 발표 명단 순)	
2월 6일 1차 발표국가 (20개)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몰디브, 스리랑카,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라오스, UAE, 이집트, 케냐, 남아프리카, 러시아, 스위스, 헝가리, 뉴질랜드, 피지, 쿠바, 아르헨티나
3월 10일 2차 발표국가 (40개)	네팔, 브루나이, 베트남, 몽골,이란, 요르단, 탄자니아, 나미비아, 모리셔스, 짐바브웨, 우간다, 잠비아, 세네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프랑스, 그리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알바니아, 이탈리아, 덴마크,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바누아투, 통가, 사모아, 브라질, 칠레, 우루과이, 파나마, 도미니카, 엘살바도르, 도미니카, 바하마

자료 : 중국문화관광부 (1차) http://www.gov.cn/zhengce/zhengceku/2023-01/20/content_5738278.htm
(2차) http://www.gov.cn/zhengce/zhengceku/2023-03/10/content_5745908.htm

자료원 : 증권일보

<http://www.zqrb.cn/finance/hangyedongtai/2023-03-16/A1678898181603.html>

9 中, 신에너지 산업 분포 가속화

- 최근 중국 서북지역 사막의 풍력·태양광 발전기지부터 동북 지역의 펌핑스토리지발전소에 이르기까지 중국내 여러 지역에서 수소에너지, 에너지 스토리지 등 프로젝트 건설을 추진
- **(대형 프로젝트 건설 착공)** 네이멍구 쿠부치사막 중북부에 위치한 신에너지 기지는 사막에 건설하는 글로벌 최대 규모의 풍력·태양광 발전기지로 투자규모가 800억 위안(약 15조 원), 설비용량은 1,600만 킬로와트임. 3월 18일 랴오닝성은 투자규모가 338억 위안(약 6조 원)에 달하는 펌핑스토리지발전소 2개와 55건의 전력망 프로젝트 건설 착공. 이에 앞서 국가전력망유한회사(STATE GRID)는 투자규모가 304억 위안(약 5.7조원)인 간쑤룽둥(陇东)-산둥 ±800킬로볼트 초고압 직류 송전공사, 간쑤위먼(玉门) 펌핑스토리지발전소 건설 착공
- **(수소에너지·에너지 스토리지 등 산업 육성)** 30여개 지역에서 신형 에너지저장 계획을 발표했고 수십여개 성·시에서 수소에너지 산업 발전계획과 실시방안을 발표함. 닝샤 지역은 2025년까지 신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을 5,000만 킬로와트, 그린수소 생산규모를 연간 8만 톤으로 끌어올릴 계획
- 발표에 따르면 2030년 중국의 풍력과 태양광 발전 설비용량은 12억 킬로와트에 이르고, 이 중 사막 지역의 대형 풍력·태양광 기지 설비용량이 4억 5,500킬로와트로 20개의 삼협 수력발전소 설비용량과 맞먹을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 경제참고보

http://www.jjckb.cn/2023-03/20/c_1310703882.htm